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지도층에 대한 불만과 마주치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은 흉년과 과도한 세금으로 양식을 얻기 위해 빚을 지어야 했고, 땅과 집과 자녀들까지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부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 줍니다. 그리고 귀족과 관리들에게 자신과 같이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꾸어 주라고 요구합니다(10절).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귀족과 관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서약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원망과 아우성이(1절) '아멘'과 '찬양'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13절).

느헤미야가 흉년을 살아갔던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위기의 순간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을까요?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9절, 15절).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표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심사숙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의 원망을 듣고 분노했지만, '심사숙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7절). 심사숙고했다는 말은 원어로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의 감정 속에서도 어떻게 문제의 진짜 원인과 해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귀족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한 말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어떤 것을 심사숙고했는지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내놓은 해답은 이자를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명기 23:19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설득합니다(9절).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하며 심사숙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이 오면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말과 '형제'라는 말입니다. (7절 형제, 8절 형제, 10절 우리)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며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은 '우리'와 '형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8절에 보면 그는 이방에 팔린 유대 형제들을 되찾아 오는 데 힘을 쏟았던 이유는 '우리'와 '형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료들에게 '우리'와 '형제'들을 생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 3.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합니다.

14~19절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해 있었던 12년의 생활을 소개합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았고(14절),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지 않았고(15절), 힘써 성전 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16절). 느헤미야는 백 오십 명의 민장들을 먹여야 했고, 매일 소 한 마리, 살진 양 여섯 마리와 많은 닭을 준비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은 포도주도 갖추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땅을 농사함으로 인해, 목축과 장사를 통해 풍족하게 채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시편 128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성공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 암송

## 이번 주 외울 말씀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9)

# 통독

## 이번 주 성경 통독

| 11/29(월) | 11/30(화) | 12/1(수) | 12/2(목)      | 12/3(금) | 12/4(토) | 12/5(주일) |
|----------|----------|---------|--------------|---------|---------|----------|
| 롬 6-8    | 롬 9-11   | 롬 12-15 | 롬 16, 고전 1-2 | 고전 3-6  | 고전 7-10 | 고전 11-14 |

# QT

## 이번 주 QT 말씀

| 11/29(월) | 11/30(화) | 12/1(수)  | 12/2(목)   | 12/3(금)   | 12/4(토)    | 12/5(주일)   |
|----------|----------|----------|-----------|-----------|------------|------------|
| 합 2:9-20 | 합 3:1-19 | 딤후 1:1-7 | 딤후 1:8-18 | 딤후 2:1-13 | 딤후 2:14-19 | 딤후 2:20-26 |

# 나눔

##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경험을 통해 나누어 주세요.